



극단 **예술극장** 서면이전 개관기념 제19회 공연

서울 극단「춘추」 김동중 초청연출
이영식의 모노드라마

닭잡아 먹고

오리발 내밀기

김문홍/작 · 김대규/녹음, 촬영

85. 7. 10~?

(평일: 7시30분, 토·일: 4시30분, 7시30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연극을 시도하는

예술극장

오리발 극장을 공상하며



작가/ 신 태 범

「쥐뿔」하면 웬만한 사람은 대번 세계적인 여류추리소설가 「애거더·크리스티」의 작품임을 알 것이다. 그리고 영국에서 1952년도 부터 현재까지 무려 34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상연되고 있는 연극이라는 사실도. 그러나 사상 최장공연으로 기네스북에 오른지도 10년이 넘는 이 추리극은 알면서도, 정작 이 극이 상연되고 있는 극장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성 마틴」극장이 그것이다. 런던의 중심가에서 조금 벗어난 구석자리에 위치한 낡고 볼품없는 이 소극장은, 「쥐뿔」으로 너무 알려져 이제는 아예 「쥐뿔극장」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런던 관광객이 줄을 잇는 명소가 되고 있다.

파리에도 「대머리 여가수」만을 장기공연해 온 소극장이 있어 그곳의 명물이 되고 있고, 한때는 이 극장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철거될 지경에 이르자 파리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은 그대로 보존할 수 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다.

우리의 처지로서 바라보면 모두가 꿈같은 얘기고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오늘의 서구문화가 찬란한 개화를 누릴 수 있었던 그 노력과 연원이 무엇이었던가를 실감나게 하는 일들이다.

「예술극장」이 광안동에서 처음 문을 연 것은 지난 82년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 극단이 전용 소극장을 마련한 예로서는 부산문화사에 있어 〈초유의 사건〉이었으나 이를 아무도 주의해 보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도 약간은 저돌적이고 무모하리 만큼 뚝심 강한 한 가난뱅이 연극인의 집념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오늘의 메마르고 척박한 부산문화의 풍토를 단적으로 드러낸 일이다.

어쨌거나 그동안 적자 투성으로 허덕이다가 결국 문을 닫겠구나 했는데, 이번에는 서면 부근으로 옮겨 개관한다는 소식이다.

외줄 위의 곡예를 보듯한 안타까움과 그래도 용케 버틴다는 그 뚝심에 새삼 경탄하는 느낌의 반반으로, 이제는 부산에도 「성 마틴」극장같은 명물이 하나 탄생했으면 하는 엄청난 공상을 해 본다. 개관공연으로 시작하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기」가 한 60년 쯤 장기공연되어 기네스북에도 오르고, 「오리발극장」이 부산의 명물로 관광객의 꼬리를 무는 그런 공상 말이다.

「예술극장」의 이전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도해볼 뿐이다.

닭 잡아먹고 닭발 내밀자



金 文 弘 / 作家

● 作家의 말

作家란 事物의 存在를 드러내게 하는 서치라이트의 役割을 해야 한다는게 평소의 나의 信念이다. 어둠 속에 묻혀 있는 事物의 眞實은 作家에 의해 그 모습을 드러내고, 또한 그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태까지 모든 것을 감추어만 왔지, 있는 그대로의 眞實을 表面에 드러내는 것에 대해선 인식하다. 80年代에 접어들면서부터 70年代의 그 암울했던 狀況이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우리는 우리의 무관심과 나약함에 깜짝 깜짝 경기를 일으키고 있다. 政治적인 것은 論外니까 접어 두더라도, 70年代의 굼직 굼직한 경제·사회적인 事件들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황폐화시켰으며, 진실하게 살려는 우리에게 싸늘한 허망감을 안겨 주었던가.

이 作品은 80年代 初에 脱稿되어 公演된 적이 있다. 이번의 公演은 內容을 조금 수정 보완하고, 장과 장 사이의 이음새를 원활하게 하여 改作한 것으로 作家로서는 舞台 위에서의 形象화가 관객에게 어떻게 나타날지 자못 궁금하다.

이 作品은 나로서는 俗物列伝의 시초에 불과하다. 人間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으며, 또한 얼마만큼 人間の 自我가 타락할 수 있는지를 70年代의 그 암울했던 狀況을 배경으로 전개시켜 보았지만, 수박 겉핥기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作家로서의 무력감을 느끼지 않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녹슬은 나의 시간을 보다 새롭게 하고, 약해진 서치라이트의 전원을 보다 보강하여 다음 기회에는 치열하고 선명한 무대를 보여줄 것을 약속하겠다.

끝으로, 서울의 劇團의 넓고 꽤기 발랄한 演出家の 김 동중兄과 地方 演劇의 活路 개척을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는 이 영식氏의 그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

작품해설

우리들의 친구 김판돌氏.

아니 우리들 자신의 이름일지도 모른다. 그는 성장기부터 불행하게 자랐으며 어머니의 허영이라는 俗物의 대표적인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무척이나 심한 갈등을 겪으며 자랐다. 청년기에는 무력한 지성(知性)들이 난무하는 大學에도 환멸을 느끼고 여러 종교를 쏘다니며 신성함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며 지내다 학교를 뛰쳐나와 복부인이 득실거리는 부동산 투기업계에 뛰어들었다.

돈과 웃음과 不信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시 환멸을 느낀 그는 어느날 갑자기 山寺(산사)로 잠적한다. 山寺까지 밀려온 물질만능(物質萬能)에 아연실색한 그는 「환상교」라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되어 도시로 입성하게 된다.

갖은 속물행각을 벌이지만 어느새 덜미를 잡히게 된다.

콩밥을 먹고 나온 그는 전당포를 경영하며 계속적으로 속물행각을 하다 죽게되어 천상재판정에 서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고발하는 자세로 버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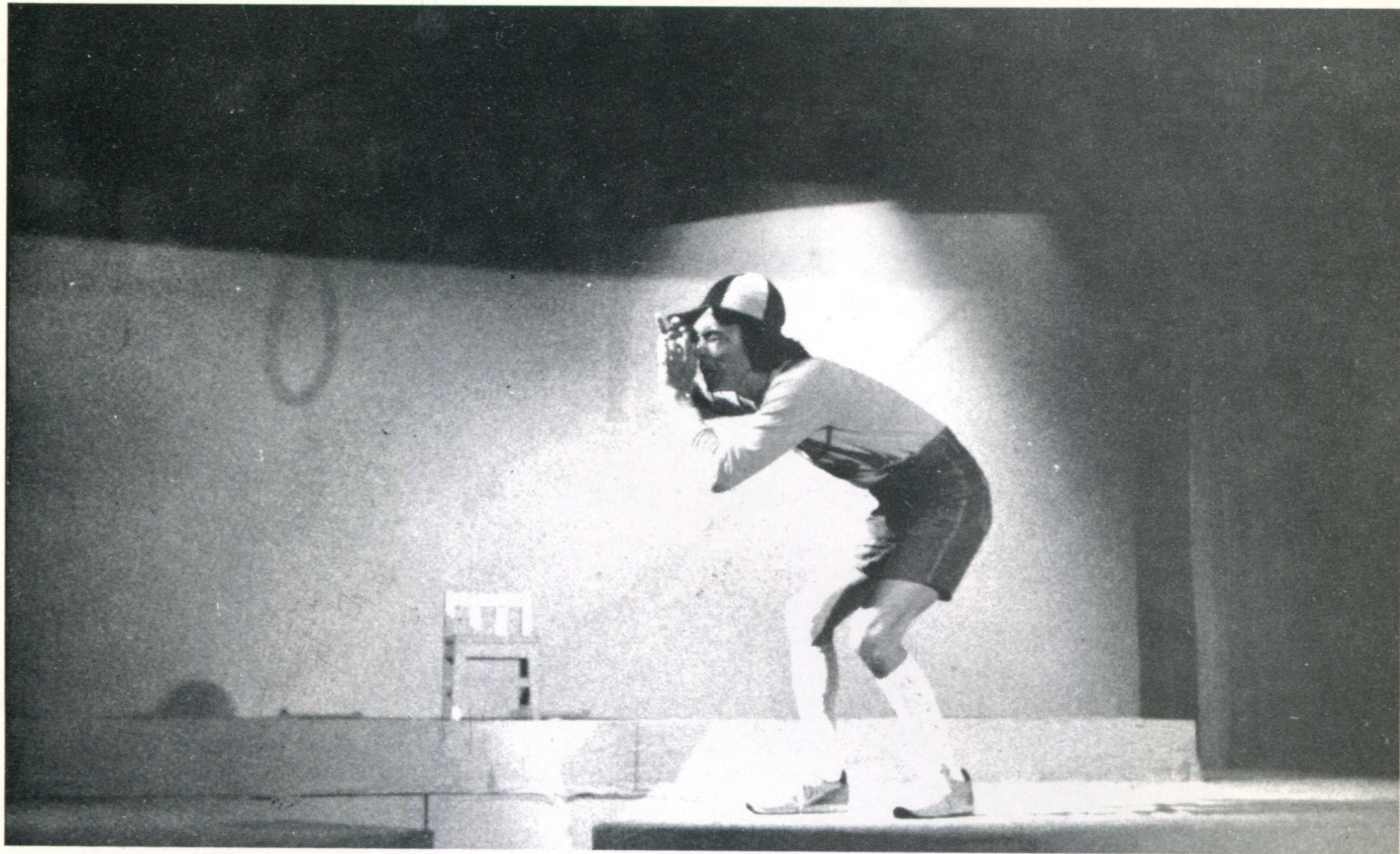
우리의 주인공 김판돌. 그는 이 時代의 俗物이 어두운 社會의 차거운 목소리들 때문에 바닥없는 수렁속으로 함몰하게 된다.

우리는 요즈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것만을 죄라고 여길뿐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것은 죄라고 여기지 않고 그저그렇게 넘겨 버린다.

성경에도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죄 하나도 결국 사망으로 이어져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 일께다.

안개처럼 불투명한 70年代의 차거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펼쳐놓은 이 연극에서 우리들은 섬찝한 전율을 느끼는 한편 우리들 자신을 한번쯤 되돌아 보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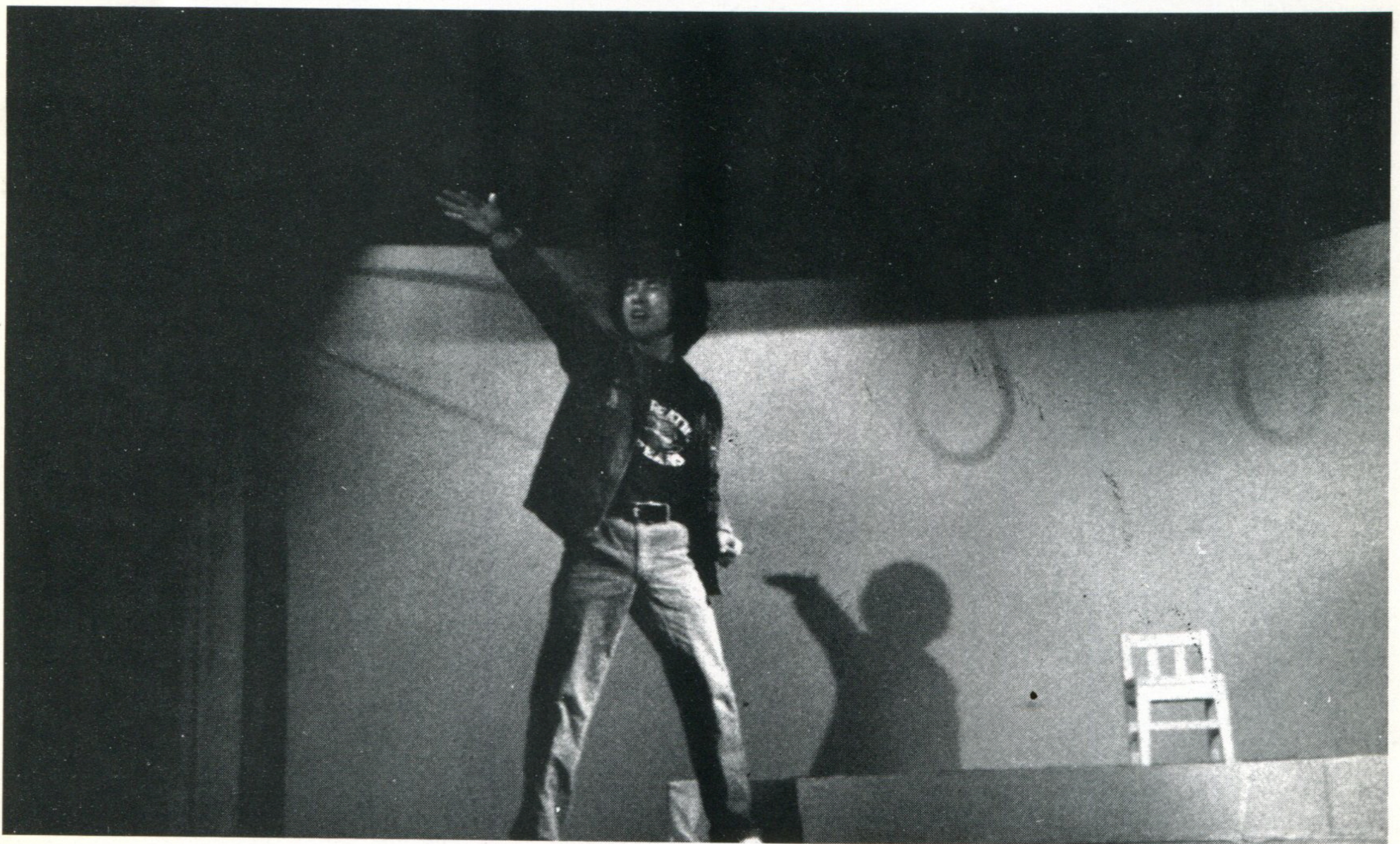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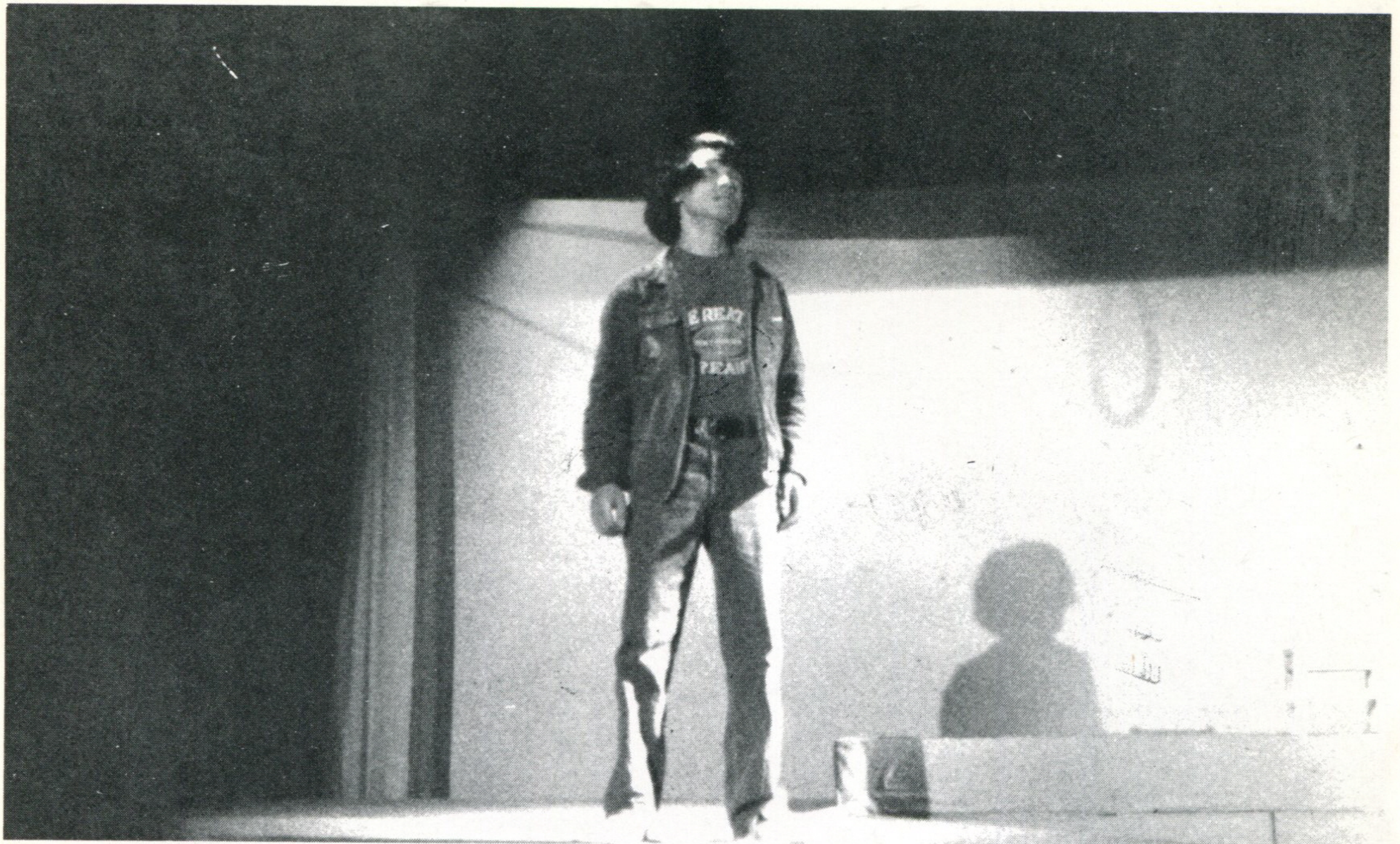
『우리들 모두 죄를 무섭게 여기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유 년 기

어머님 날 질질 끌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난 그때 결심했죠 “참자./ 참자./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앞으로 십여년만 참자. 내가 스스로 일어설때까지만 아니꿈고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꼭 참자./”하고 말이에요.

나야 뭐 어머니의 살아있는 장식품에 불과 했었죠.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어머니의 꼭두각시



청 년 기

요즘의 계집들 말이죠. 숯제 머리통은 전자계산기구요 가슴속은 죄다 컴퓨터 부속 투성이예요. 이것들 말이죠 만나면 우선 상대방의 통수부터 재는거예요.

그 계집애 말이예요, 만나고 헤어지는걸 허리끈 푸는것 만큼이나 쉽게 생각하는 데 순결인들 어떻게 생각 하겠어요? 뒷구멍 닳는 크리넥스보다 더 흔하게 생각할 건 뻔한 이치 아닙니까?



중년시절

복부인들. 요년들 보자보자 하니까 너무 하더군요. 았았다 하면 1점에 오천원, 만 원짜리 고스톱은 예사이고 사업에 바쁜 남편들의 눈길을 피해 젊은 농팡이와 춤바람이 나는가 하면 「애./ 우리 그이는 요즘 정력이 약해진것 같애, 애./ 애./ 우리 그이는 말이야, 올라았았다 하면 기총소사야./」



사 이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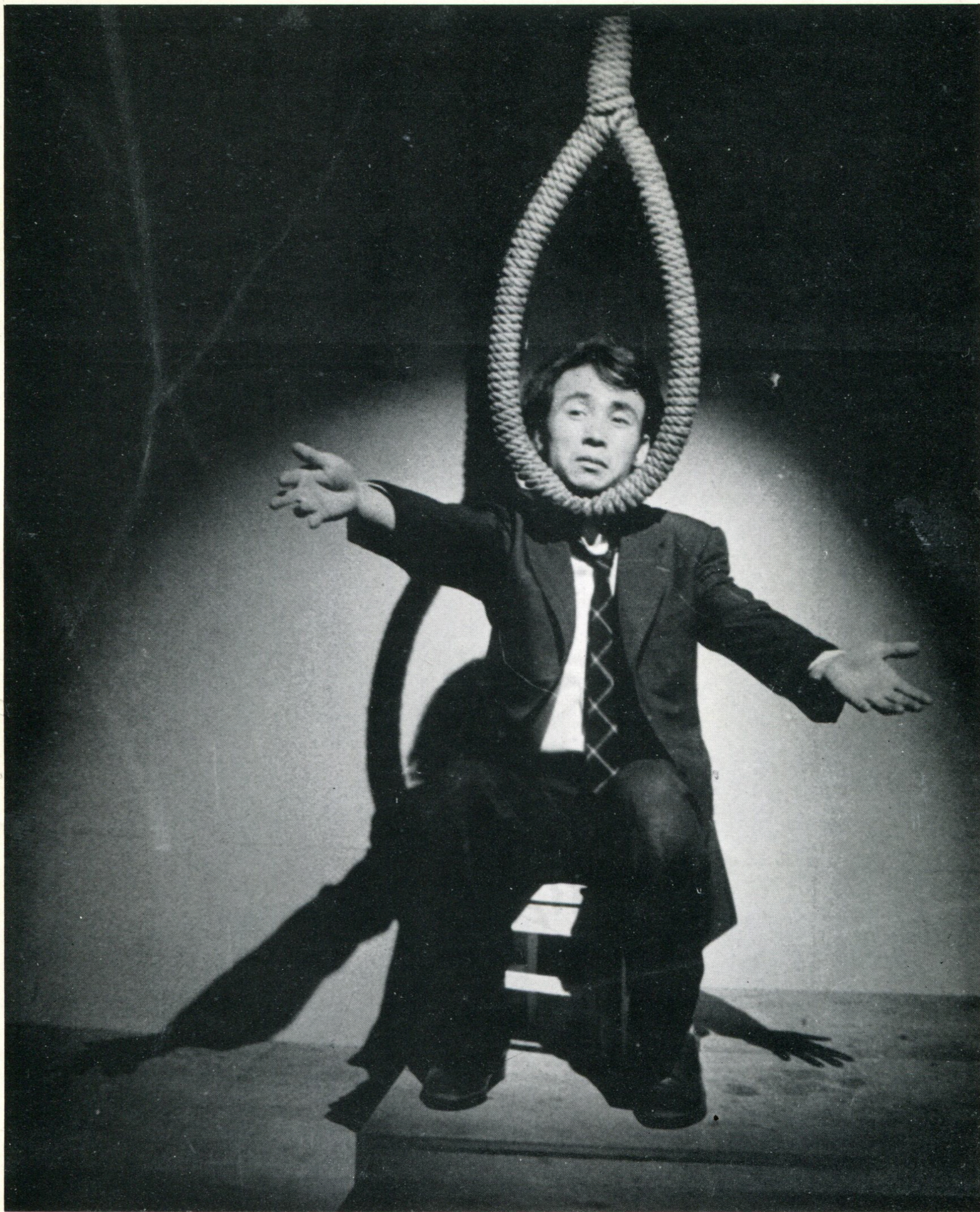
홍알 공알 통알 공알 아리스토 소코라테 버지니아 울프 사마리아— 그 이름도 찬란한 환상교였어요.

환상이 안개를 피워놓고 꿀꺽! 환상적인 설득작전으로 모조리 회쳐먹고 환상적인 공포로 널름! 널름! 적막강산! 인생이 무한계도 위를 달리고 있는 관광 열차인줄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라는 존재가 거대한 우주속의 한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



장 년 기

절간에 들어가서 제가 연구한게 뭘줄 아세요? 오리발을 내밀려면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기로 하자. 이걸 뭐 부처님 앞에 돈만 갖다 바치기만 하면 보살행세였어요. 「얼마니까?」 「네. 십만원이에요」 「어서 이마를 내미십시요」 「살짝 소리나게 짱」의 생무상! 그것도 올려니까 즐지에 덮쳐 옵니다.



노 년 기

재판관님! 닭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사람은 나 말고도 부지기수로 많단 말이에요. 까짓것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세상인데. 어떤 개아들이 진짜 닭발을 내밀겠어요? 이승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자리에 모인 모든 피고들을 대신하여 한마리 속죄양이 되고 싶습니다. 어차피 닭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세상 아니겠어요?